

러 사할린에 '청정바다 수도' 완도 알렸다

신우철 군수 평화통일 페스티벌 참석 해조류 등 홍보 해양치유산업 추진·친환경수산물 국제 인증 전복 소개

신우철 완도군수가 러시아 사할린에서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알렸다. 완도군은 21일 "신우철 군수가 지난 18일부터 이남까지 러시아 사할린에서 민주평통 유림지역회의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평통 유림지역회의는 2018

장보고한상(韓商) 대상 수상자인 박종범 부의장 주최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이상민 의원, 개성공단 김진향 이사장 및 유림지역회의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 주요 업무 보고, 통일과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임 토의, 정책 건의 등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박종범 부의장으로부터 초청받아 행사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가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한상 및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는 가장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완도 전역이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깔려 있어 맛과 향이 뛰어난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체내에 흡수된 미세먼지를 흡착시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조류"라며 해조류의 효능을 알리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각광 받고 있는 해조류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한 완도 전복 등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 참석을 계기로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상들에게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참석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홍보했다. /완도군 제공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군, 천연기념물 제39호 비자나무서 당산제 강진군은 최근 정월대보름을 맞아 군 병영면 삼인리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39호에서 자연유산 민속행사 당산제를 치렀다. 이날 당산제에는 이송욱 강진군수와 김용호 전남도의원, 서순식·김창주 강진군의원, 김영일 병영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기운대 동삼인 마을주민들이 정성스레 차린 제상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진군 제공

땅끝 해남서 3·1 운동 함성 울려 퍼진다

郡, 3·1절 기념식·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땅끝 해남에서도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해남군은 3월 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군민광장 일원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오전 10시를 기해 군민광장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해남항일운동 순국열사 애국지사 추모사업회 회원, 군민, 학생 등 600여명이 참여하는 만세운동 재현이 펼쳐진다. 해남에서는 1919년 전국적으로 몰아친 3·1운동의 물결에 합세해 4월 6일과 11일, 해남을 장날을 맞아 1천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3·1운동 1주년이 되던 1920년 4

월 23일에는 우수영에서 500여명이 주민들이 참여한 만세 행진이 있기도 했다. 육전면은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으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참여,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지강 양한목 선생의 생가가 위치한 곳으로 생가 복원과 함께 매년 광복절을 즈음해 무궁화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만세운동 재현은 당시의 해남인들의 의기를 되새기고 땅끝에서 시작하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군민과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해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이다. 만세운동 재현 후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이 진행되며 특히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항일운동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를 위한 합동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사진전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등이 진행돼 나라사랑 인증샷 행사도 함께 열린다. 앞서 해남군은 100주년을 기념해 영화 '말모이'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독립운동 관련 영화를 매달 상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관내 중·고교를 순회하며 옥매광산 광부 집단 수몰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상영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한반도가 시작되는 곳 땅끝 해남에서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병용 기자

화순경찰,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향상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화순경찰서(서장 강일원)는 지난 19일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경찰서와 지구대 견학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화순경찰서 112상황실 및 강력팀, 화순읍 내 지구대를 방문 및 112신고 출동, 민원업무 처리와 인권의식 향상, 전화 금융사기 수법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순군 동면 소재

사랑의 집 봉사활동과 성금을 전달해 북한 이탈 주민들도 타인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줬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경찰서와 지구대 견학 및 장애우 시설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오늘 '제97회 열린강좌'

구례군은 22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97회 구례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진도 강사를 초청해 '국민총행복 시대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의

현황과 패러다임의 전환, 행복정책의 국내외 사례, 국민총행복과 각 주체의 역할 등을 살펴본다. 또 성장과 행복의 괴리 속에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군민공감대화 및 마을순회방문,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통한 군정발전 제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강좌 문의는 구례군정총무과(061-780-2317)로 하면 된다. /구례=이성구 기자

목포소방서, 소방관서 道종합평가 '최우수'



목포소방서는 최근 전남도소방본부 주관 '2018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됐다. /목포소방서 제공

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최근 2018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목포=강효종 기자

전남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관서 종합평가는 주요 소방 정책 5개 분야 75개의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업무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한 도민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목포소방서는 전남도 소방서간의 교차 평가와 검증, 평가 전 분야에 걸쳐 최상위 평가점을 획득, 최우수 관서로 지정됨으로써 4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했다. 박달호 목포소방서장은 "지난해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우수 관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정책 수행과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목포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강효종 기자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